

막바지 인프라 구축 '착착'... 입장권 52만장 판매 '대박' 예고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 D-50



■ 세계대나무박람회 행사장 개요



체험 행사 위주 친환경·힐링 두가지 테마... 해외 홍보도 온 힘

“대나무의 고장 담양의 푸른 대숲에서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신비로운 경험을 체험하세요!”

대나무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만나볼 수 있는 '2015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 개막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나무를 소재로 하는 최초의 국제행사다.

대나무박람회 조직위는 “지난해 9월 시작된 사전 판매도 28일까지 모두 52만 장의 입장권이 팔렸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지난해 5월 총괄운영 대행사를 선정하면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으며 6개월간 마련한 실행계획을 토대로 박람회장 시설, 임시주차장 등 조경 작업을 일정에 맞춰 추진하고 있다.

대나무박람회는 ▲죽녹원을 중심으로 하는 '주제 체험구역' ▲전남도립대학 운동장 일대의 '주제 전시구역' ▲종합체육관 및 도립대학 주차장을 중심으로 하는 '체험 교육구역'으로 이뤄진다.

'주제 체험 구역'에는 오감체험관과 담양대 나무관, 미디어 아트관, 문화체험관이 있으며, '주제 전시 구역'에는 생태문화관과 미래성장

관, 기업관 등이 들어선다.

체험 교육 구역에는 주제영상관(Bamboo Show)을 비롯해 '체험 놀이관', 친환경 농산물의 재배과정을 이해하고 직접 구매도 하는 '친환경 농업관', 담양과 대나무의 미래를 제시하는 '주제영상관', '박람회 홍보관'이 관람객을 맞는다.

박람회조직위는 많은 관람객들이 다녀가는 죽녹원에 힐링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 박람회장 내·외부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박람회조직위는 박람회 홍보를 위해 광주시 교육청과 전남도 교육청, 한국 여행업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대만, 중국, 미국 등 세계 각국의 대나무관련 기관, 단체 등과 끊임없이 교류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교류의 일환으로 박람회 기간 중에 '세계 대나무협회 제10차 총회(WBC)'가 개최된다. 14개국 62개 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총회에서는 100여 건의 대나무 관련 논문이 발표되며, 15건의 포스터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5 담양 세계 대나무 박람회' 개막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프라 구축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제관내 '대나무 미디어아트존' 상상도.

또한 40개국의 많은 디자이너의 관심을 받았던 '대나무산업화 공모전' 수상작 9점도 미디어로 만들어져 박람회장에서 공개된다. 박람회조직위 관계자는 “죽녹원을 '지붕 없는 주제관'으로 하는 친환경 박람회, 행사 규모보다 내부 콘텐츠로 승부하는 강한 박람회,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해 사무관리 부담

을 덜어낸 경제적 박람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남은 50일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과 산림청, 전남도가 공동 주최하는 '2015 담양 세계 대나무박람회'는 '대숲에서 찾은 녹색 미래'를 주제로 9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45일간 죽녹원 및 전남도립대 일원에서 열린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전남 자연환경연수원

테마가 있는 환경문화캠프

전남 자연환경연수원(원장 정승준)은 8월 1일 성암 캠핑장을 찾은 200여 명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2015 테마가 있는 환경문화캠프'를 개최한다.

이날 캠프는 천연비누·주방세제 만들기 체험을 비롯해 환경버튼 만들기, 미꾸라지 잡기, 환경 레크리에이션, 캠프파이어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연수원의 자연사박물관을 견학하고 환경사진전을 관람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담양군 수북면 대방리 병풍산 자락에 개장한 성암 캠핑장은 지난 3월에 테크 9개를 증면해 모두 20개의 사이트나 펜션에서 묵을 수 있게 됐다. 또한 100% 천연수를 사용하는 미끄럼틀 숲속 수영장도 비롯해 취사장·세면장·화장실·샤워장 등 편의시설과 원형 캠핑 파이어장·야외 강당·야외 음악당·축구장도 갖추고 있다. 캠핑장은 100% 예약제(365.campchon.com)로 운영되며, 이용요금은 2만~3만원이다. 문의(061-381-8361) /담양=정재근기자 jrg@



장성군 지역인사 7명 홍보대사 임명

장성군이 지난 2010년 조례제정 이후 처음으로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 인사들 '장성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장성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위촉식을 갖고 홍보대사 운영방향 설명 및 '엘로우 시티' 등 중점 홍보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에 임명한 군 홍보대사는 조선희 장성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안숙자 민주평화통일 장성군협의회회장, 강성주 장성군 축제추진위원회, 김재선 지방행정동우회 장성군분회장, 공영갑 장성문화원장, 박

형동 전남도 문인협회장, 윤태진 모범운전자회 장성지회장 등 총 7명이다.

군 홍보대사는 2년 임기의 무보직 명예직으로, 중요한 군정소식 및 시책을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군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등 군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축제 등 군의 주요 행사 시 핵심 홍보요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군은 이번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라적으로 군정홍보를 추진하고, 군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대민 홍보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화순군 내달부터 '100원 택시' 확대 운행

버스 승강장 거리 완화

3개면 30개 마을 추가

이용객도 2배 이상 늘어

8월부터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가 청풍면, 도곡면 도암면 등 3개 면지역까지 확대 운행된다. 택시 사업자의 경영에 도움은 물론 전통신장 활성화와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군은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마을주민의 교통복지를 위해 8월 1일부터 '100원 효도택시'를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가운데 승강장까지 거리가 1k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대상마을 거리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0개 읍·면 37개 마을에서 13개 읍면 67개 마을로 대상 마을이 30개 확대되고, 이용객 534명에서 1169명으

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청풍면, 도곡면 도암면 등 3개 면은 이번엔 거리를 완화하면서 새롭게 '효도 택시'가 운행된다.

특히 기존 자가 운전자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확대 시행으로 67명이 새로 혜택을 입은 데다 상주 택시 없는 마을에 공차요금 적용으로 비수의 노선에 따른 운행기피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2억5000만 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00원 효도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면소재지와, 읍에서 읍 소재지까지 이용시 각각 월 2매(1인당 이용요금 100원), 면에서 군청이나 읍사무소, 읍·면 전 통시장까지 이용할 경우 월 1매(3인 기준, 1200원/1인당)의 이용권이 지급된다.

특히 이용권이 있는 주민이 가족이나 마을주민과 같이 동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4명이 동시에 탑승할 경우 최대 8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100원 효도택시' 운행은 구충근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구 군수는 지난 3월 군민과

의 대화에서 올해부터 확대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지난 6월 말까지 '100원 효도택시' 총 이용 횟수는 5944회, 이용객 수는 1만7832명이다. 구 군수는 최근 버스운행이 어려운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100원 효도택시' 운행과 이동복지 상담실 운영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혁신경연부문 'TV조선 2015 경영대상'을 수상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들의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0원 효도택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확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남지역에서는 화순을 비롯해 나주, 광양, 곡성, 영광, 함평, 보성, 영암 등 12개 시·군 지역에서 '100원 택시'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곡성군은 내년 1월부터 거리에 상관없이 1000원만 내면 곡성 관내 어디든지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1000원 버스' 제도를 시행한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장성군 북하면 소재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임야 매매

편백, 삼나무 40~50년생 50만주 식재됨
현재재료 가격이 주당 3000원 정도 거래됨

계곡이 깊어서 물이 마르지 않고
공기와 경관이 최상지로
계곡따라 산책로 8km 조성 되어 있음!

면적 107만㎡ 매가 25억
(13.3㎡당) 평당 7,700원 정도

010-6518-7123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치평동 정현철

상가·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월산동 2층건물 매 13억5천(보1억 월680만)
- 수암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산정동(축척사거리) 2층건물 매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첨단) 3층건물 매25억(보2억 월 1,000만)
- 월계동(첨단) 상가건물 매70억(보14억 월3,000만)
- 용봉동 2층 상가주택 매12억(보1억1천 월580만 포함)
- 풍암동 4층 상가주택 매 7.2억
-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매 6.9억
- 치평동 상가 4층 임대 310㎡ 보5천만/월300만 (학원, 사무실 적합)
- 벽진동 마산마을부근 창고 230㎡ 임대 보3천만/월170만 (조정가)

대지·전용가능 녹지·전/답

- 충장로4가 중심상업지역 대지 2,270㎡ 매 41억
- 화정동 대로변 준주거지역 대지 945㎡ 매 27억
- 마륙동 대지 701㎡ 매10억5천만
- 벽진동 대지 1,350㎡ 매 9억4천만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2,962㎡ 매 1.8억(주말농장적합)
- 무안군 청계면 전원주택부지 882㎡ 매 1.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현영

☎ 010-5536-0382

상무 Biz Center

즉시입주가 가능 임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쾌적한 업무환경과 여유로운 주차,
상무지구에서 가장 저렴한 임대, 관리비,
정직한 공용면적 적용으로
입주업체와 함께 동반성장 하겠습니다.

건물구분	관장업종	면적
1층	은행(ATM), 편의점, 소매점	임대완료
2층		잔여 1201㎡
3층		1629㎡
4층		1267㎡
5층		1400㎡
6층		임대완료
7층	은행, 보험, 증권	1400㎡
8층	기타사무실	1383㎡
9층		잔여 591㎡, 307㎡
10층		1342㎡
11층		1307㎡
12층		임대완료
13층		임대완료
14층		임대완료

상무비즈센터

(구 남영비즈타워)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로 103 (치평동 1210-4)

임대관리 **010-2633-1100**
관리실 : 062)381-5551 FAX : 062)384-5551